

남부발전, 석회광산 풍력단지로 개발

단양에 30MW 풍력발전기 15기 설치 ... 태양광 모듈 설치방안도 검토

한국남부발전은 현대시멘트, 한국전력기술과 단양 석회광산의 채광 완료 지역을 풍력발전단지로 개발하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현대시멘트가 풍황조사를 위한 부지를 제공하면 남부발전과 한국전력이 사전 타당성 검토를 거쳐 30MW규모 국산 풍력발전기 15기를 설치할 계획이다.

석회석 광산은 고지대에 위치해 풍력발전 사업의 시행 여건이 양호하고 일조량도 풍부하며, 석회석을 캐내고 난 훼손지역에 설치함으로써 복구비용 절감 효과도 있다.

남부발전은 1단계로 풍력발전 단지를 조성하고, 조업 여건을 고려해 남은 땅에 태양광 발전을 위해 모듈을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남부발전 관계자는 “전국의 석회석 광산 훼손지역을 활용함으로써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를 개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성공하면 폐광 복원비용도 줄이고, 에너지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저작권
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9/09/08>